

옥정호 순환도로 벚꽃 만개 군민 모두가 즐기는 화합 축제

임실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주말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 선사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가는 길인 옥정호 순환도로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이번 주말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사할 전망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 순환도로 변에 벚꽃이 활짝 피면서 벚꽃 향연을 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의 인가와 더불어 벚꽃까지 만개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운암면 소재지부터 구 운암대교까지 10km의 벚꽃길을 이루는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만개한 벚꽃길은 청정 옥정호와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요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어우러져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6일 개최된 옥정호 벚꽃축제는 3만15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고,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옥정호 순환도로에 활짝 핀 벚꽃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다.

수변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진 옥정



옥정호 순환도로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이번 주말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사할 전망이다.

호 출렁다리와 봄꽃으로 단장한 봉어섬 생태공원은 지난 3월 1일 재개장 이후 현재까지 4만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봄맞이 관광객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

옥정호 순환도로 변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봉어섬 생태공원에도 봄꽃들이 활짝 피면서 관광객 탄사가 쏟아진다.

심 민 군수는 "봉어섬 생태공원과 벚꽃길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은 걸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벚꽃이 지고 난 후에도 5월에는 작약, 철쭉, 덩굴장미 등 옥정호만의 이색적인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상의 드라이브길과 산책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자매결연지 광주 남구청서 홍보 나서

임실치즈 판매행사 · 임실 방문의 해 집중 홍보

역시 임실N치즈가 광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치즈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다.

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8일과 9일 자매결연지인 광주 남구청을 찾아 임실치즈 판매행사와 임실 방문의 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임실엔치즈클러스터가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군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 고향사랑팀, 임실방문의해팀이 총출동해 치즈 판매와 더불어

어 임실군 관광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 SNS 구독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박정환 부구청장, 총무과, 홍보실, 주민복지과 등 남구청의 여러 부서 직원들이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뜨거운 구매 열기를 보였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판매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임실N치즈와 유제품을 맛보고 구입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남구청 직원들과 시민들의 구매 열기에 힘입어 이틀간 치즈 판매액만 1,100여만원으로 높은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 본격 추진

남원시가 지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024년부터 시행한 '남원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는 고향을 떠난

고향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작년에는 관내 중학생 24명이 17박 18일 (7.17.~8.3.)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올해도 7월

중 뉴질랜드 현지 공립 중학교에서 17박 18일 일정으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체험과 영어 실력 향상 및 국제 감각 함양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위탁업체는 모집 중이며 5월 중 관내 중학교 2학년생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참여 학생을 모집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63회 순창군민의 날 18일 개최

순창군이 오는 18일 개최하는 제63회 순창군민의 날을 앞두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문화행사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순창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군민화합음악회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연진으로는 홍진영, 박현빈, 마이진, 박상철, 박민주, 예지니가 무대를 꾸며 관객들에게 흥겨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행사는 전통과 지역색을 살린 △민속놀이 경연대회 △축등행렬 △군민화합가원제 △옥천출다리기(고사울) 등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골목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마당, 전통놀이 체험,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또한, 관내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짜장면, 떡볶이, 파전, 호떡, 봉어빵 등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로 중앙로 일대에는 교통제한 등 일시적 불편이 예상되지만, 중앙로 상인회는 화장실 개방 등 적극



적인 지원과 협조로 행사 성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행사 11일, 군수 주재 행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당일 중앙도로 일부 구간은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군은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식사다회용기로 전면 교체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조문객 식사에 사용되던 일회용기를 전면 다회용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다회용기 구입 비용

과 세척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례식장 내 모든 조문객 식사는 앞으로 다회용 그릇, 수저, 컵 등으로 제공된다.

사용 후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업체가 수거해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재공급되며, 재사용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운송에 필요한 비용만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고덕산 등산로 정비 추진… 안전 · 편의성 ↑

임실군이 관하면 고덕산 일대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패킹등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4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총사업비 2억여원을 투입, 약 2.5km에 이르는 숲길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한다.

이번 정비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성이다.

고덕산 등산로 전 구간에 걸쳐 숲길 정비와 더불어 침목 계단, 안전 로프 난간 등을 새롭게 설치해 경사면 구간의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빈집 정비사업 추가 추진 박차

남원시는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해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왔다.

또한 남원시는 시에서 빈집을 직접 철거하는 대신 빈집 철거 후 내대지를 주차장, 텃밭 등 공공목적으로 3년간 활용하는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빈집 정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의 소유주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4)에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3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건축과 홍성복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공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 적극 홍보

순창소방서는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임산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와 '임산부 안심+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건강 정보를 등록하면, 119 신고 시 출동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4일, 순창소방서는 한 임산부가 갑작스러운 진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자 즉시 출동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구급대원들은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산모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한 분만을 도왔으며,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무사히 병원에 이송됐다. 또한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의사소통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